

전남 동부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병중 고흥군수

우주항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박병중 고흥군수는 새해 화두(話頭)를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룬다'는 의미인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했다.

박 군수는 "올해 고흥군정의 최대 목표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강 농공단지 기업 입주와 조선타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등 이미 추진중인 투자유치 추진과 지역경제 살리기 주력 등 고흥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흥군 유통주식회사 경영전문화, 고흥농수산식품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등 농수축산업의 가공, 유통 분야의 경쟁력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최남단 고흥관광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진지도와 우도 등의 '테마의 섬' 개발, 해양만 공원화 사업, 천등산 철쭉생태원 조성, 고흥 우주항공축제 부활, '고흥 10경 둘레길' 조성, 갯벌을 테마로 한 '선정 국제머드립픽' 개최 등 고흥 관광 활성화도 본격 추진된다. 박 군수는 "거금도 연도교 완공과 녹동항 정비, 고흥읍 남계 택지개발, 과역 거점면 소재종합개발, 공영 주차타워 건립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미래산단 조성 박차

본격적인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그동안 역점으로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주항공과 지역인프라 구축, 관광진흥, 농수축산업과 군민복지 등 균형 전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2개 업체가 본격 가동을 준비중인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인 고흥 미래산단단지 조성 박차, 광주시 교육청 청소년 임해수련원 건립도 올해 본격화된다. 우주항공클러스터 조기 구축 실현과 우주천문과학관 개관, 우주에코랜드 조성, 발사전대안 완공,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군(郡)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대표적 특산물인 고흥유자를 지

군민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도 올해 추진할 최대 사업중 하나다. 공동생활가정 확대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기금 조성 등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관한 군민 중앙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흥 10경 둘레길' 조성

박 군수는 "지난해 고흥읍 소도를 육성 100억원을 비롯해 지역인프라 확충과 열악한 재정을 메울 국비확보에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며 "이 밖에도 고흥 나들목 설치 실시설계 완료, 고흥~봉래간 국도 15호선 확포장 실시설계지구 확정, 수덕지구 우수 저류시설 추진 등 지역 SOC와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군민복지 서비스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이어 박 군수는 "오늘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내일의 성장을 좌우하고 미래발전의 넓이를 결정한다"며 "올해를 '꿈을 현실로 이루는 원년', '고흥성공'의 기폭제가 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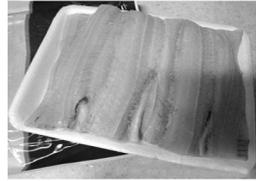
여수 '순살갈치' 흡쇼핑 대박

월평균 5억 매출...안강망 어선 소득도 2배 경증

여수 순살갈치가 흡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1일 여수수협 등에 따르면 '여수 순살갈치'는 지난 8월부터 농수산 흡쇼핑에서 매출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식품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순살 갈치는 여수 안강망 30여 척이 제주 연안 23해구 등에서 잡아 급속 냉동해 신선도가 일품이고, 뼈와 노릇을 통째로 하고 있다. 순살 갈치를 개발한 금전수산 송영희(54.여) 대표는 "갈치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손질이 많아 귀찮은 점을 고민하던 중에 순살갈치를 개발했다"며 "순살 갈치는 무엇보다도 선도가 100% 유지되고 첨가물 없이 자연산 그대로 뼈를 발라 먹기가 편한 것

로가 없어 시세가 나가지 않았던 여수갈치는 한 중매인에 의해 순살 갈치로 개발되면서 안강망 어선들의 소득도 덩달아 2배로 늘어났고 있다. 순살 갈치가 인기를 끌면서 고용 창출도 60여 명에 달해 지역 경제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전수산은 현재 순살 갈치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다. 금전수산은 순살갈치 성공에 힘입어 올해 삼치, 고등어,고시 등의 다양한 자연산 수산물을 흡쇼핑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여수수산 업체는 과거 여수가 꾀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듯이 순살갈치가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금전수산은 현재 순살 갈치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다. 금전수산은 순살갈치 성공에 힘입어 올해 삼치, 고등어,고시 등의 다양한 자연산 수산물을 흡쇼핑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여수수산 업체는 과거 여수가 꾀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듯이 순살갈치가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보성 녹차, 이번엔 식용유다

영농조합, 노화방지 쌀유 본격 출시

보성산 녹차를 이용한 연관제품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녹차 식용유'가 출시됐다. 보성녹차 영농조합(대표 임화춘)은 11일 새로 개발한 '보성녹차쌀유' 제품 설명회와 식품 시식회를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번 개발된 녹차 식용유는 녹차잎의 지용성 성분 추출물 15%와 쌀눈·쌀겨에서 추출한 현미유 85%를 혼합한 제품이다. 특히 피부노화를 막아주고 항암작용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는 비타민E(천연 토코페롤)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임화춘 대표는 "식물성 유지 본래

의 고소한 맛과 향에 녹차의 기능성분이 추가된 고급 웰빙 식용유"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 녹차 연관 제품은 현재까지 녹차라떼, 차를 이용한 기능성 스낵, 페이스팩, 녹차장갑, 녹차 두부, 발효차, 녹차 볶음소금, 녹차배우스, 녹차유, 녹차 입욕제, 발효녹차 식초, 녹차 식초음료 등이 개발됐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새얼굴

"교통위반 등 불법·무질서 척결"

박봉기 광양경찰서장

"국민존중과 현장 제일주의를 치안활동의 중심축으로 삼아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인권 경찰상을 구현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신임 박봉기(56) 광양 경찰서장은 "범죄예방과 검거, 교통질서 지키기 등 민생치안 확립과 함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모든 불법행위와 무질서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 출신인 박 서장은 지난 1981년 간부후보로 경찰에 투신해 전남경찰청 경무과장, 광주경찰청 경무과장, 순천서장, 광주 관산, 광주 북부, 남부서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김민욱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호수 부안군수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 획정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를 맞아 부안군이 새만금의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민선 5기 출범 후 6개월은 부안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며 "서민경제가 활성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할 수 있는 대표축제 개발에 나선다. 갈수록 침체돼 가고 있는 부안을 상권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기기 위해 제 2농공단지의 일부 미분양 면적을 신속히 분양완료하고, 내년에는 참프레 등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부안을 상권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업 등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김 군수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관광력이 크게 증가해 부안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으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중인 대명리조트를 비롯해 모항 가족호텔과 새만금 농협연수원 등 대형

숙박시설을 유지했고, 500실 규모의 변산 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연결되는 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새만금' 하면 부안이 연상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변산 마실길'과 더불어 새만금 방조제 길과 연결되는 길을 관광코스 상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방조제에서 격포권 관광지에 이르는 '새만금 권역'을 핵심 관광지화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미분양 완료

김 군수는 "일체감치 양잠산업을 가능성스 오디뽕 산업으로 확대 발전시켰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잠산업을 2000억원 규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에 힘입어 부안군이 선점하고 있는 가능성스 참뽕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안참뽕 브랜드 홍보역시 지난해 대도시 매스미디어·아파트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함께 트위터 광고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군수가 돼 진복도를 넘어 전국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격포항 요트시설 조성

올해 핵심시책은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획정을 부안군이 요구하는 안대로 추진하는 것과 ▲부안 제3농공단지 입지선정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 ▲격포항 요트계류장시설 조성 ▲참뽕산업 집중 육성 ▲부안군 대표 축제 개발 및 개최 ▲변산 청소년수련원 건립 ▲부안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변산반도 해상탐방로 및 변산자연휴양림 조성 등이다. 김 군수는 "정부와 대법원을 상대로 부안군의 경계획정 논리와 주장이 합리적이며 최상의 대안이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부안군의 원력을 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의 역사문화와 정체성이 녹아들어 있으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특산물의 판매에 있어서 브랜드마케팅을

전북



"구제역 예방주사야 조금만 참아" 전북도내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정읍시 점촌반원들이 지난 10일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의 한 축사에서 농가의 도움을 받아 한우에게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군산 올해 1만명 일자리 창출

시, 243억 투입...복지·산림·사회적기업 육성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1만명의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242억4900만원을 투입해 복지 및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등 공공부문에 5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은 ▲미착공 129개 기업의 조

업 착공유도, 기술인력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4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연중 실시하게 되는 지역공동체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등이고, 민간부문은 ▲미착공 129개 기업의 조

새만금 ~ 군산 송전선로 공사 내달 시작

한국전력이 새만금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공사를 다음달에 시작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

리한 한국전력은 군산시에 도시계획 실시 (전력공급설비)인가를 이달중 달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은 인가즉시 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철도부지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에 여성전용 콜택시

익산시는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브랜드 택시 '서동콜'과 '보석콜'을 각각 500대씩 본격 운영한다. 특히 1000대 택시중 여성 및 모범운전자로 선정된 '여성전용(pink) 택시' 50대를 운영해 심야시간 등에 여성 및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랜드 택시는 무선기를 이용해 배차하는 기존 콜택시와 달리 GPS로 승객과 최단거리에 있는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첨단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신속한 배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요금결제기 가능하며 현금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기자 ryu0418@

'잊혀져 가는 순창의 모습들' 郡, 10년만에 증보판 펴내



순창군이 1910~2010년대까지의 지역 생활상을 담은 '잊혀져 가는 순창의 모습들' 증보판을 10년 만에 펴냈다.

순창군은 지난 2001년 펴냈던 초판에 수록한 224매의 사진 외에 지난해 11월 군민과 향우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 155매의 사진을 추가했다. 증보판에는 미군이 찍은 8·15 직후의 모습을 비롯해 ▲옛거리·마을·건물의 모습 ▲흔레·회갑·장례모습 ▲군청, 읍·면사무소 청사 어제와 오늘의 모습 ▲고무통을 타고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사진) 등이 다채롭게 실렸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30.3km)에 철탑 92개 등을 갖춘 송전선로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지와 피해에 따른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상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세 마찰이 예상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강철수기자 nogusu@